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민영기 교수

넓은 경희대 수원캠퍼스의 가장 안쪽, 야트막한 산 위에 자리한 경희천문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오를 것 같은 비행접시를 닮아 쉽게 눈에 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문대 2층에 위치한 민영기 교수의 방을 찾았다.

“어제 늦게 외국에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일주일 정도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천문 관련해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이집트는 처음입니다.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유적이더군요. 이집트의 젓줄이라고 하는 나일강 주위를 따라 경작지가 늘어서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온통 사막뿐입니다. 예전부터 해마다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로 밀려 내려온 엄청난 토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나일강 삼각주는 엄청 비옥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한번 나면 땅의 모습이 바뀌버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땅의 경계를 다시 측량해야 했죠. 덕분에 천문학이나 기하학 등의 학문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은퇴를 하셨지요.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당시 기분이요. 글썽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고 거쳐야 하는 인생의 한 과정으로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은퇴하고서도 여전히 학교에 나오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 노교수도 시간과 함께 힘이 부쳐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은퇴는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일 뿐

“요즘은 몸이 좀 힘들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5일은 꼭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하기에 힘이 부칩니다. 그래서 집에 쉬면서 책을 쓰거나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부터 교양 과학 서적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쓰는 것에 남다른 솜씨가 있으신가요?”
“항상 글쓰는 게 힘든 걸로 봐서는 타고난 솜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읽히게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제 글이 쉽고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드니까요. 그러나 글을 논리적으로 풀어쓰는 능력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출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게 1957년 일입니다. 그로부터 올해가 딱 반세기가 되는 해이죠. 지금 그 반세기의 우주 개발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쓰고 있는데,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 이제야 아폴로를 지나 우주왕복선까지 왔습니다.”
“전파천문학이 주 연구 분야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분야로 생각되는 우주 개발 역사를 쓰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천문학과 우주 개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천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행성 탐사선이 날아가고, 행성 탐사선을 통해 새로운 천문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둘은 매우 긴밀하죠. 물론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천문학 관련 우주 개발이지만, 이와 함께 전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주 개발 50년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 하나를 뽑으신다면 무엇일까요?”

“아폴로죠! 당연히 아폴로입니다. 당시 미국 국립천문대에서 전파 관측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이란 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저와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인간이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974년에 국립천문대가 발족한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에 있던 민영기 교수는 초대 천문대 대장직을 맡아 귀국하게 된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느냐 마느냐 엄청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문대이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도 보람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국내 환경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지금의 발전한 우리나라 천문학을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수십 년을 연구해온 온 분야인 전파천문학에 있어서 민 교수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전파천문학을 선택한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대학원 때 지도교수가 전파를 추천했고, 그게 제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측하는 영광을 얻었으니까요.”

“전파를 통한 외계인과의 접촉을 그린 영화 ‘콘택트’를 보면 전파천문대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교수님도 외계인으로부터의 전파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측을 할 때는 항상 ‘저 전파 속에 혹시 외계인의 신호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는 합니다. 아마 세계 모든 전파 천문학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외계의 고등 생명체가 보낸 전파를 발견한다면,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을 물론이고, 유사이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미칠 영향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죠. 실제로 관측을 하다가 자연적인 신호와는 다른, 인공적인 신호가 출력된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내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기의 오류에 의한 해프닝으로 끝났지요.”

전파천문학과 콘택트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인류의 달 착륙을 꼽은 민영기 교수가 미래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뽑은 것이 바로 외계 생명체 발견이다.

“아마 과학자들에게는 물론 인류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년 후의 어느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우주적인 ‘콘택트’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주에서 문명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현재 알려진 문명은 지구 밖에 없으니 수명 역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칼 세이건이 그의 저서 코스모스에서 언급했듯이, 인류가 얼마나 지혜롭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핵전쟁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은 그리 오래 못 갈지도 모릅니다. 내적인 문제 말고도 소행성 충돌과 같은 외계로부터의 위협도 존재합니다.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은퇴 후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찾은 민영기 교수가 계획했던 일은 그 동안 읽지 못하고 쌓아 놓은 고전 소설을 한 권씩 읽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면서,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몸이 힘드니 오랜 시간 책을 볼 수가 없더군요. 결국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연구할 때는 은퇴하고 보면 되겠지 하고 미루었는데, 지금은 후회됩니다. 고전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기는 학생 때밖에 없습니다. 고전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읽혀지는 것은 그 속에 삶이 있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